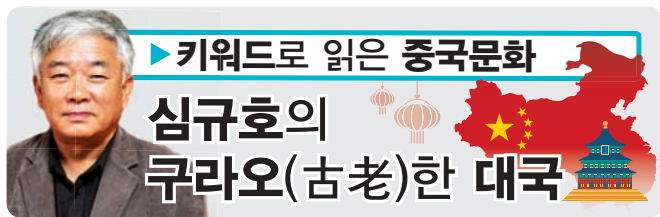


급제·낙제 두고 지식인들 일희일비... 공복인가, 노복인가



19. 과거제도의 결과 속(2)

인문학·아문학 발전 긍정 효과속
팔고문 등 과거만의 형식·내용도
공부와 인품이 비례하지도 않아

달 지고 까마귀 우는데 하늘엔 서리 가득/강가 단풍나무와 배의 등불 바라보다 시름에 겨워 잠드는데/고소성 밖 한산사/한밤중에 울리는 종소리 객선까지 들려오누나.(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鐘聲到客船)

당 천보天寶 12년(753년) 예부 진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관리 임명 여부를 확정짓는 이부吏部 전형(속칭 관시關試)에서 떨어져 귀향하던 차에 소주蘇州에 들른 장계張繼가 자신의 시름을 노래한 '풍교야박楓橋夜泊'이다. '전당시全唐詩'에 실려 있는 그의 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에 회자하는 시이자, 한산사를 유명하게 만든 시이기도 하다. 공명과 이복利祿을 보장하는 과거 급제이니 문사들이 말달리듯 몰려드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급제하면 그야말로 안 되는 일이 없지만 낙제하면 참으로 되는 일 하나 없다. "귀밑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오로지 계수나무 가지 꽃아보려는 일념으로 책속에 파묻혀 피땀을 흘렸는데"(조하趙嘏, '하제상이중승下第上李中丞'), 또 낙제라니! 하여 유, 무명의 시인들이 적지 않은 낙제落第 또는 하제下第라는 제목의 시를 남겼는데 삼시간에 진흙 구렁이에 빠져 그저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꼴이 되었음을 자탄하니 구구절절 마음 아프다. 물론 급제자들이 준공에 득의하는 기쁨을 노래한 시도 있다. 급제와 낙제를 사이에 두고 한 나라의 지식인들이 울고 웃기를 반복하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인력낭비가 우습하다.

과거는 인재선발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문관 중심의 정치체제, 즉 중국 관료체제가 완비되었다. 취사取士의 등용문인 과거가 문관을 위주로 선발했으니 당연하다. 실제로 당송은 물론이고 명청대에도 무과는 설치되어 있었으며 무관 출신으로 중앙 고위관직에 오른 이는 거의 없다. 굳이 거론하자면 명대 무장 척계광戚繼光 정도인데, 그는 무과를 본 것이 아닐뿐더러 재



청대 팔고문 시험지.

상 장거정張居正의 추천으로 고위급 장성에 올라 왜적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장거정이 죽자 탄핵을 받아 몰락하고 말았다. 남송의 명장으로 당시 최정에 군단인 약가군岳家軍을 이끌고 금나라와 맞서 싸운 약비岳飛 역시 진사급제하여 재상에 오른 진희秦檜의 무고(죄명은 막수유莫須有(혹시 죄가 있을 지도 모른다)였다)로 죽임을 당한다. 반면에 문관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변방 생활을 한 이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송대 범중엄范仲淹은 진사급제한 문관이었으나 서북 변방에서 4년간 군대를 이끌었다. 문관 위주의 사회가 되다보니 송대처럼 인문학이 발흥하고, 시문 위주의 아문학雅文學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역효과 역시 만만치 않았다.

과거에서 중시하는 것은 유가 경전(명경과)과 시문(시부와 책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전을 달달 외고 시문을 잘 짓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만의 내용과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청대 과거는 팔고문八股文이라는 독특한 문체를 사용해야만 했다. 두 개의 넓적다리(股) 네 개, 즉 여덟 개의 다리로 이루어진 문체로 파제破題, 승제承題, 기강起講, 입수入手, 기고起股, 중고中股, 후고後股, 속고束股로 나누어진다. 쉽게 말하자면 기승전결起承轉結을 8가지로 나누어 놓는 셈이다. 문체는 주희의 '사서집주'에서 인용한 몇 개의 글자이고, 처음은 두 구절로 제목의 뜻을 설명하는 파제로 시작해야 한다. 이후 문장은 대연으로 의미나 글자수가 맞아야 한다. 형식이 내용을 앞매고, 내용은 유가의 사서에 막혀 있다. 글의 내용과 형식이 얽히고 막혔으니 생각과 관념이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여 중국의 명문 가운데 팔고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송대의 경우 소식의 '성시형상중후지지론省試刑賞忠厚之至論'(소식이 22세 때 예부 진사시험에 제출한 답안지) 정도만 거론될 뿐이다. 긴장된 상태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험 안지에서 어찌 명문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또한 공부와 인품이 항상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천하의 근심을 남들보다 앞서 고민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남들보다 늦게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범중엄范仲淹), '약양루기岳陽樓記'고 자부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



과거 부정행위 증거. 저고리 가득 경전이 적혀있다.

몇이나 되었을까? 청백리는 적고 탐관오리는 수없이 많았다. 관리의 녹봉이 영 형편없었고 관직이 인원보다 적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렇다면 빈곤이 오라汚吏를 부른 셈인가? 아니다. 탐욕이 탐관貪官을 만들었을 따름이다.

왕안석 등 과거 개혁에 목소리 오랜 존속 끝 1905년 8월 폐지 가오카오 등 현대판 과거 존재

역대로 과거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북송 왕안석王安石이다. 새로운 과거법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거는 진사과만 설치한다. 둘째, 반드시 학교 교육을 통한 승급을 거치도록 하고 마지막에 중앙에서 통일된 과거시험을 실시한다. 셋째, 기존의 시부詩賦 등 문학과목을 폐지하고 경의經義와 책론策論으로 바꾸며, 전시는 논책 한 가지로 제한한다. 넷째, 학교 교육과 과거시험의 과목을 경전으로 제한하여 사상적 통일을 기한다. 그의 개혁안은 당시 격렬한 논쟁이 있기는 했으나 이후 명청 시대까지 계승되었다. 명청대의 과거시

